



## 충격!! 기자회견 방해 세력, 박상은 회장의 지난 시장선거 캠프진으로 판명!!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린 ‘박상은회장 방송사유화 음모 폭로 및 방송독립 선언’을 위한 iTV노조 비대위 기자회견장에서 iTV 사원을 사칭한 불순세력이 난입해 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체불명의 한 인물이 회견장으로 들어와 기자들에게 문제의 정치프로젝트 작성자인 모앤도 사장 민경희의 진술서를 들렸다. 의아해진 비대위와 기자들이 그의 정체를 물어봤더니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대위와 실랑이를 벌였다. 비대위가 집요하게 그의 신분을 캐묻자 그는 “민경희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해 모두들 약 10분간 기다렸다. 잠시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민경희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iTV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그 사람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iTV 직원을 사칭한 이유를 물었지만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전국언론노조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중부지구대에 그를 신고했고 지구대 2명이 와서 그를 연행해 갔다.

그는 지구대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계속 묵비권만 행사했다. 비대위는 그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고 지금 조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그가 지난 인천시장선거 때 박상은 캠프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했던 이모씨였음을 밝혀냈다. 이모씨는 박회장과 같은 Y대 출신이며 절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판명됐다. 남대문경찰서 중부지구대는 이모씨를 남대문경찰서 형사계로 데려갔다. 한편, 이모씨와 함께 동행했던 2명 역시 각각 지난 시장 선거 때 박회장 수행비서였던 양모씨와 박상은 회장의 고향 선배이자 선거캠프 특보를 맡았던 유모씨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박회장이 과거 자신의 선거참모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기자회견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끝>